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조선해양, VLCC 2척 수주

한국조선해양이 유럽 소재의 선사로부터 초대형유조선(VLCC)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총 계약금액은 약 2천억원이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어 2022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스크러버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미포조선, 수주했던 자동차운반선 4척 중 잔여 2척 계약해지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자동차운반선(PCTC선) 4척 가운데 2척의 건조계약이 해지됐다고 보도됨. 앞서 현대미포조선은 2015년 9월 마셜제도 선사로부터 자동차운반선 4척을 수주한 바 있음. 계약 해지금액은 1,718억원이며 발주처가 용선처를 찾지 못해 계약 취소를 요청했고 현대미포조선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됨.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항공우주산업, 의무후송 전용헬기 8기를 육군에 인도 마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9일 국산 의무후송 전용헬기(KUH-1M)를 모두 육군에 인도했다고 밝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8년 12월 방위사업청과 의무후송 전용헬기 양산계약을 맺었고 올해 1월부터 첫 인도를 시작해 8기 납품을 모두 마쳤다고 보도됨. (비즈니스포스트)

자꾸만 좁혀지는 spread

저유황유(VLSFO)와 scrubber-fitted 선박이 사용하는 3.5% 고유황 연료의 가격 차이가 다시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됨. 지난 10월 말 싱가포르의 VLSFO가격은 연초 IMO2020이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톤당 41.57달러까지 떨어졌다고 보도됨.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낮춤으로써 HSFO 구하기가 다소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오른 데 비해 VLSFO는 글로벌 원유 하락의 영향으로 가격이 내려간 것이 spread 축소의 이유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선박 금융, 지금은 재택근무 중

선박 금융이 아직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선박 금융 대출 계약은 체결되고 있다고 보도됨. 코로나 사태 이후 은행들이 보인 첫번째 대응책은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이었으나, 세계 각국이 경기 회복정책을 제시하고 팬데믹 초반 탱커 수요의 급증, 최근 컨테이너선 시황의 개선 등으로 선박금융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요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JP Morgan orders slew of Shell-chartered LNG-fuelled barges

Concordia Damen이 JP Morgan Asset Management가 주도하는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LNG 추진 내륙 수로 운항용 바지선 40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Shell이 용선할 해당 선박은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운하 및 하천에서 내륙 운송 전문사 VT Group/Marlon이 운항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TradeWinds)